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관계연구: 교차지연 패널모형(CLPM)을 중심으로

이 경 호*

본 연구는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의 동태적 연관성에 관심이 있다. 상향적 관점에서 직무만족과 같은 개별영역은 삶의 만족을 높여야한다. 하향식 관점에서는 역방향으로 작용해야한다.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상호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와 22차 조사를 활용하여 3 요인 2 시점(N = 2423)의 표본에 대해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사이의 양방향 연관성을 교차지연 패널모형(CLPM)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변화(재정 만족)와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대해 두 시점에 걸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개별영역과 삶의 만족 간 방향 연관은 상호작용 관점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간 변화패턴 차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직무만족에 비해 비직무 만족(가계부채 변화)이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두 개별영역 또한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개인 삶의 비직무 영역에서도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성의 제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주요용어: 가계부채 변화, 직무만족, 삶의 만족, 교차지연 패널모형

Ⅰ. 서 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How´s Life? Well-Being,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0-10점 만점 중 6.1점으로, 조사국 30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OECD iLibrary, 2020). *또한,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4 분기 말 가계신용'에 따르면 2019년 4/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4.1%(27조6000억 원) 늘어난 160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삶의 만족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며 직무 영역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는 직무 관련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직무 관련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Diener, 2000; Diener, 2000; Diener, 2009). 최근 수십 년 동안 대중 담론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로부터 오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일과 삶의 균형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은 복합적 구성개념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식

* 서강대 경영대학원 박사 / 제1저자(totolee2009@gmail.com)

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보다 전체적(holistic)인 이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장이 제시 되어 왔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에서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Lero, Richardson, & Korabik, 2008). 둘째, 현실의 본질에 더 밀접한 일과 삶의 인터페이스 개념화를 만들기 위해 일과 삶의 연구는 경제 동향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Özbilgin, Beauregard, Tatli, & Bell, 2011). 셋째, 시사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삶의 만족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개별영역(specific-domain)에서 만족을 제시했다. 기존 문헌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만족을 표현하기 위한 특정 영역으로 주택, 대인 관계, 환경, 정치, 금융 등에 대한 만족과 같은 다양한 개별영역의 만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에서의 만족은 특정 행동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의 만족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과 재정 만족은 개인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의 만족 척도이다. 재정 만족은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고 직무 만족은 실제 직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Medgyesi & Zólyomi, 2016). 그러나 가계부채(주택담보 관련 대출, 신용 카드 부채, 학교 대출 등) 영역의 만족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의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영역의 만족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개별영역의 방향성이다.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의 선행변수라는 이론적 가정이 자주 설정되고 있지만, 구성개념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방향성 확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Rain, Lane, & Steiner, 1991). 최근에는 일방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사이의 상호 경로를 찾는 종단 분석이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다(Judge & Watanabe, 1993b). 본 연구는 양방향 연관성을 1년 간격에 걸쳐 종단으로 잠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1.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일과 삶의 균형 관계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다소 혼돈되고 심지어 상충되는 주장들이 때때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였다(Ariza-Montes, Arjona-Fuentes, Han, & Law, 2018; Erdogan, Bauer, Truxillo, & Mansfield, 201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개발로서 Campbell et al, (1976)의 삶의 만족 영역 모형에 따르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이론적 관점이 있다(Campbell et al.,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상향식 관점(bottom-up approach)이라고도 하는 첫 번째 관점은 개별영역의 만족이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직무 만족이 삶의 만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무 만족은 삶의 만족에 어떤 우연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Campbell et al., 1976; Erdogan et al., 2012). 상향식 관점에서 삶의 만족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삶의 개별 영역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로 제시된 삶의 영역 중에는 건강, 가족, 소득, 금융, 사회적 관계, 여가, 일, 성생활, 주택, 안전, 자존감, 교육에 대한 만족 등이 있다. 즉,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 삶의 만족을 부분적으로 개념화하고,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이 객관적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매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개별 영역은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 될 수 있지만 다른 문화 사람들의 삶의 만족을 판단 할 때는 삶의 영역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Lucas, Diener, Grob, Suh, & Shao, 2000). 또한 상향식 관점은 맥락적 패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전 영역의 만족이 충족되어야만 이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예측할 수 있다. 상향식 접근 방식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객관적 조건에서 파생 된 여러 영역에서 다른 영역 만족과의 통합을 통해 축적되는 패턴을 띠게 된다(Leonardi, Spazzafumo, & Marcellini, 2005).

두 번째 관점은 대조적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하향식 관점(top-down approach)으로 본다는 것으로 삶의 만족이 직무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만족에 대한 상황적 접근 방식이 아닌 처분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Judge & Watanabe, 1993a). 하향식 관점은 개인의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도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객관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질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Headey, Veenhoven, & Weari, 2005). 즉, 개별 영역 만족은 특정 사건, 상황 및 범주에서 안정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의 결과로 간주된다(Schneider & Schimmack, 2010). 이것의 연구 사례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 삶의 만족이 7가지 만족 영역(건강, 여가, 이동성, 경제 상황, 주택, 생활공간 및 서비스)에서 유의미하게 예측되는 것을 보여주었다(Leonardi, Spazzafumo, Marcellini, & Gagliardi, 1999).

세 번째는 상기의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는 상호작용 관점(interactionist approach)으로 객관적 조건과 심리적 특질 간에는 인과 영향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하향식 및 상향식 요인을 양방향 인과 관계가 있는 동시적 독립 및 상호의존적 변수로 취급한다(Hagmaier, Abele, & Goebel, 2018). 이 관점은 통합적이며 삶의 만족에 대한 처분적(즉, 하향식) 및 상황적 내지는 맥락적(즉, 상향식) 접근 방식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삶의 만족은 개별 영역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영역별 만족은 비슷한 정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수 사이의 인과적 방향에 대한 논란을 상호관계를 시작 모형으로 하는 모형에서 양방향의 효과를 추정한 후 다음 각 변수 쌍에 대한 두 효과 중 가장 강한 효과와 모형에서 무시할 수 있는 효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제기되었다(Heller, Watson, & Ilies, 2006; Scherpenzeel & Saris, 1996b).

2. 가계부채의 변화(재정 만족)

최근에는 Campbell et al, (1976)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 기반 하에 개인 삶의 만족 수준에 대한 변화의 영향과 직무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 금융 및 컨설팅 부문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변화(재정 만족)는 이 연구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개별 영역 중 하나이다.

삶에 대한 만족은 개별 영역 만족의 집합체로 이해 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변화(재정 만족)는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의 하위 구조로 이해되지만 이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일치 되지 않고 있다(Joo & Grable, 2004). 따라서 연구자들은 비교 가능성을 허용하는 개별 영역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실용적이고 간결한 프락시를 선호한다. 직무 만족과 재정 만족은 개인의 생활 상황에 대한 삶의 만족의 척도이다. 물론 주택, 대인 관계, 환경, 정치 생활, 제도 등에 대한 만족과 같은 개별 영역 만족과는 다른 많은 척도가 있다. 이러한 개별 영역에서의 만족은 특정 행동과 상황, 만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한다. 또한 재정 만족에 관한 연구로서 가계의 재정 상황이 삶의 만족을 예측한 반면 역 방향으로는 어느 하나에서도 예측을 발견할 수 없었던 연구도 있다(Scherpenzeel & Saris, 1996a).

기존 연구는 삶의 만족에 대한 소득의 영향과 가계 자산 또는 부채와 같은 다른 변수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했다. 특히 소득은 재정 만족과 양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주관적인 재정 상황이 재정 상태의 금전적 측면 외에도 개인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문헌이 있다(Gray, 2014).

3.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양방향 연결

기존 문헌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 방향이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견되기도 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한 변수를 선행변수로 사용하여 연구자의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실증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 관계없이 횡단면 연구를 주로 활용했다. 또한, 횡단면 분석보다 인과 관계에 대한 강한 추론을 얻기 위하여 비 실험 연구에서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잠재적인 양방향 연결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역 방향성만 테스트하기 위해 시간지연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개별영역 만족 측면에서 가계부채와 직무만족은 변화하는 성질로서 동태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동태적 성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의 연결 방향성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교차지연 패널 분석(CLPM)은 잠재적인 양방향 연관성을 동시에 테스트하며, 통합적인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교차지연 패널 분석에서는 동일

한 구성개념이 여러 시점에서 측정되며, 자기 회귀 효과(autoregressive effect)와 교차 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는 동일한 분석모형에서 평가된다. 자기 회귀 효과는 시간에 따른 구성개념의 안정성을 나타내지만 교차 지연 효과는 자기 회귀 효과를 제어 한 후 잔차 분산에 대한 시간적 연관성을 평가한다. 교차지연 패널 모형이 강력한 인과적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개념 간의 잠재적인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Newsom, 2015).

Ⅲ.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및 샘플링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일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대표적 종단조사이다. 1차 조사(1998년)를 시작으로 22차 조사(2019년)까지 완료되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1차 및 22차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표본을 선정하였다. 첫째로 가구용 설문지 중 가구 부채에 응답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부채 합산을 위하여 가구주나 가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에 재직한 임금근로자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셋째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인 가계부채, 직무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 모두 해당된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다른 시점 간의 조사대상자인 경우 추정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단순 제거(listwise deletion)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참가자가 선택되어 분석에서는 2423 명의 조사대상자가 유지되었다.

2. 변수 측정

가. 가계부채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변화를 재정 만족의 설명 변수로 대리하는 개별영역 만족 척도로 조사했다. 이는 구성개념 간 비교 가능성을 허용하는 재정 만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간결한 프락시 변

수 선호를 반영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총 6개 항목(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부어야 할 계, 기타)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총 부채액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현재 가구에 남아있는 부채의 총액은 각 항목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가계부채의 총액을 구하고, 21-22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에서 조사대상자의 가구 총 부채액 범위를 1 = '2500만 원 미만'에서 5 = '16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총 가계부채를 한국 원화로 보고했으며, 이는 자연로그로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

나. 직무만족

직무만족 변수는 조사 측정문항을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9가지 항목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항목을 활용하였다. 조사항목은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이다. 측정항목은 '(1)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역코딩 응답의 예상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만족도와 숫자가 비례 증가하도록 변환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인 Cronbach α 값이 2018년, 2019년 각각 0.873, 0.883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 수치를 보고하였다.

다.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sujective well-being)의 지표로도 사용되는 삶의 만족은 주관적 행복, 삶의 질, 복지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실제 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삶의 만족 변수는 조사 측정문항을 개인적인 만족도로 측정하였는데 6가지 항목을 활용하였다. 조사항목은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측정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답을 하였다. 다만,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역코딩(reverse coding) 응답의 예상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만족도와 숫자가 비례 증가하도록 변환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인 Cronbach α 값이 2018년, 2019년 각각 0.883, 0.91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 수치를 보고하였다.

라. 데이터 분석

첫째, 확인 요인 분석(CFA)을 사용하여 종단면 측정동일성을 테스트하였다(Newsom, 2015; Vandenberg & Lance, 2000; Vandenberg & Lance, 2000).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모형에서 모든 모수는 시간에 걸쳐 자유롭게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 적재치가 시간에 걸

쳐 동일하도록 제약되는 종단의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longitudinal weak factorial invariance) 모형을 추정했다. Vandenberg와 Lance (2000)의 연구를 따라서 카이-제곱(Chi-square), 절대적합도 지수인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 (RMSEA), 비교 적합 지수(CFI), 터커 루이스지수 (TLI) 및 잔차 평균 제곱이중근(SRMR)을 포함한 여러 지수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조사했다. 또한, 측정동일성 유형은 위계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nested) 있으며, 이는 한 수준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려면 분석 모형이 이전 수준에서 동일성이 충족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Chakraborty, 2017). 사실상 분석 모형이 전체 측정 동일성은 거의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이 일부 집단에서 변하지 않거나 일부 측정값이 모든 집단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 분석 모형은 부분 동일성(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을 대개 보여준다(Byrne, Shavelson, & Muthén,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시점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대상 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형 수용의 결정시에는 보다 자유로운 컷오프 기준을 사용하였다(CFI> 0.90, TLI> 0.90, SRMR ≤ 0.10).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형태 동일성 모형의 컷오프 기준(ΔCFI = 0.0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이 그대로 보고된다(Vandenberg & Lance, 2000).

둘째, 교차지연 패널 모형(CLPM)을 사용하여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관계의 종단면 연관성을 평가했다. 시점 1의 모든 구성(즉,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그리고 인구 통계 학적 변수)은 외생 변수로 지정되었으며, 시점 2의 모든 구성은 내생 변수로 지정되었다. 모든 분석은 SPSS AMOS Ver. 26을 사용하여 MRL(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estimation)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Ⅳ. 결 과

1.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표본 수는 2423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18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7.2%, 여성은 552명으로 22.8%로 나타났다. 남성 조사대상자의 비중이 여성 조사대상자에 비하여 약 3배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40대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31%(751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50대 26.1%(632명)로, 30대가 18.1%(438명), 60대가 16.5%(400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에서 20대 조사대상자는 단 1.1%(27명)이다. 반면 70대 이상의 고령 조사대상자가 7.2%(175명)로 확인된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을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5.3%(856명)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28.2%(684명)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대학 졸업이 16.0%(388명), 중학교 졸업이 8.4%(203명), 초등학교 졸업이 6.0%(145명), 대학원 석사가 4.6%(111명), 대학원 박사가 1.0%(24명), 무학이 0.5%(12명)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전체 표본에 대한 이변량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이변량 상관관계

	가계부채t1	가계부채t2	직무만족t1	직무만족t2	삶의만족t1	삶의만족t2
가계부채t1	1					
가계부채t2	0.775	1				
직무만족t1	0.139	0.137	1			
직무만족t2	0.119	0.132	0.311	1		
삶의만족t1	0.178	0.148	0.361	0.205	1	
삶의만족t2	0.148	0.161	0.302	0.243	0.481	1

2. 측정 동일성 평가

측정 동일성 평가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표 2> 측정 동일성 평가

	χ^2 (df)	RMSEA	CFI	TLI	SRMR	△CFI
형태 동일성	4523(326)	0.073	0.894	0.877	0.036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4523(324)	0.075	0.894	0.876	0.036	0.000

두 시점에 걸쳐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형태 동일성의 기본 모형이 추정되었다. 모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 할 수 있었지만, 기본 모형에 지정된 변수 간 관계만 추정되도록 하였다. 이 모형에서 허용되는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χ^2 (326) = 4523.520, RMSEA = 0.073 [0.071, 0.075], CFI = 0.894, TLI = 0.877, SRMR = 0.036. 그런 다음은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이 추정되었다. 이 모형에서 허용되는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χ^2 (324) = 4523.560, RMSEA = 0.075 [0.073, 0.077], CFI = 0.894, TLI = 0.876, SRMR = 0.036. 중요한 것은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가 형태 동일성의 기본 모형(ΔCFI = 0.000)에 비해 기준 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이는 종단의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 교차지연 패널모형 표준회귀 측정치

	Estimates	S.E.	C.R.	p
가계부채 T2				
가계부채 T1	1.589	0.057	28.112	***
직무만족 T1	-0.071	0.087	-1.734	0.083
삶의 만족 T1	-0.136	0.090	-3.214	***
직무만족 T2				
가계부채 T1	0.034	0.012	1.265	0.206
직무만족 T1	0.503	0.019	16.519	***
삶의 만족 T1	0.124	0.023	4.794	***
삶의 만족 T2				
가계부채 T1	0.066	0.010	1.236	***
직무만족 T1	0.180	0.027	6.836	***
삶의 만족 T1	0.458	0.023	14.166	***

3. 교차지연 패널모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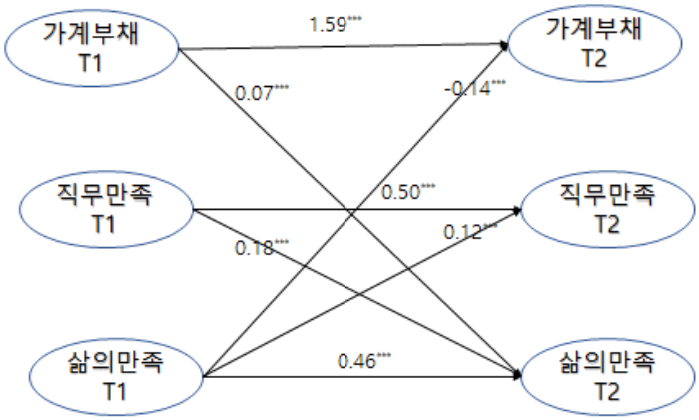
종단 2 시점에 걸쳐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을 설정 한 후 모든 조사대상자를 기반으로 한 교차지연 패널 모형(N = 2423)이 추정되었다. 이 모형은 비교적 좋은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χ^2 (337) = 7348.205, RMSEA = 0.093 [0.091, 0.095], CFI = 0.823, TLI = 0.801, SRMR = 0.036. 교차지연 패널 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자기 회귀 효과는 긍정적이고 유의하여 모든 구성개념이 1 년 간격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2 시점(t2)의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모든 구성개념의 교차 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였다(β = 0.066, SE = 0.010, p < 0.001; β = 0.180, SE = 0.027, p < 0.001; β = 0.458, SE = 0.023, p < 0.001). 여기서 직무만족은 가계부채 변화 보다 삶의 만족을 더 잘 예측한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개별영역으로 부터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 예측 가능성이 다양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개인 분석단위에서 일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은 근로, 가족, 공동체,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만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Campbell et al, (1976)의 삶의 만족 영역 모형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2 시점(t2)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두 구성개념이 유의하였다(β = 0.503, SE = 0.019, p < 0.001; β = 0.124, SE = 0.023, p < 0.001). 다만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에서는 상호 교차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β = 0.034, SE = 0.012, p = 0.206; β = -0.071, SE = 0.087, p = 0.083).

또한 교차지연 패널 모형에서 측정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형태 동일성

[그림 1] 교차지연 패널 연구 모형(N= 2423)



의 기본 모형은 χ^2 (326) = 4523.520, RMSEA = 0.073 [0.071, 0.075], CFI = 0.894, TLI = 0.877, SRMR = 0.036와 같은 허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도 허용되는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χ^2 (324) = 4523.560, RMSEA = 0.075 [0.073, 0.077], CFI = 0.894, TLI = 0.876, SRMR = 0.036, 그리고 형태 동일성의 기본 모형에서 기준 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다(ΔCFI = 0.000). 따라서 측정 모형은 두 시점에 걸쳐 측정 단위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와 22차 조사를 활용하여 3 요인 2 시점 (N = 2423)의 표본에 대해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사이의 양방향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종단의 약한 측정단위 동일성을 설정 한 후에, 교차지연 패널 분석을 사용하여 1년 간격 시점으로 3 요인 구성개념 사이의 양방향 연결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점 1에서의 삶의 만족은 시점 2의 모든 영역에서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졌지만, 시점 1에서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은 시점 2에서의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과는 서로 교차하며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만, 시점 2에서의 삶의 만족은 시점 1의 모든 영역에서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사이의 연결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으로 첫째,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는 매우 강하다. 다만, 많은 연구자들은 직무만족이 선행 내지는 외생 변수라는 가정 하에 횡단면 연구 결과에 인과 관계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 인과 관계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우선 해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과관계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 더 적합한 3 요인 2 시점 교차지연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관점(interactionist approach)에서와 같은 직무 만족이 후속으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이 후속으로 직무 만족에 동시에 긍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도도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allard *et al.* (1997)에서 발견 된 상호 연관성과 양방향성(bidirectional model)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은 역동적이고 수정 가능한 상황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Mallard, Lance, & Michalos, 1997). 이는 개별 영역 만족에 대한 인식은 급여, 승진 기회 및 근무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 특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질적인 측면은 외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이 지속적인 정서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Heller, Watson, & Ilies, 2004).

둘째, 삶의 만족과 다른 개별영역의 인과 관계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과 재정 만족의 인과 관계 탐구는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삶의 만족과 가계부채 변화의 인과 관계 탐구는 이론적 접근방법이나 모델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의 변화(재정 만족)는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의 하위 구조로 이해되지만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이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상호작용 관점에서와 같은 가계부채 변화가 후속으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이 후속으로 가계부채 변화에 동시에 부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도는 거의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은 직무 만족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이고 수정 가능한 상황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질적 측면의 동시 고려 필요성이라 하겠다.

셋째로는,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변화패턴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별영역으로서 두 변수를 통합한 교차지연 패널 모형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비직무 영역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재정 만족은 직접 소득 이외의 상황 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직무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과 약한 관계를 보인 반면, 비 직무 영역에 대한 만족은 삶의 만족과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Near & Rechner, 1993; Near & Rechner, 1993; Rode, 2004).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에서 관계 정도가 낮거나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직무만족에 비

해 비직무 만족(가계부채 변화)이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의 관련 인식에도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개인 삶의 비직무 영역에서도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예를 들면,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 전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제한된 종단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태도는 문화, 세대, 경제적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 해 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맥락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비교할 때 가계부채 변화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관계의 연관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 수준의 연관성을 더 넓은 범위의 문화 맥락 수준에 따라 국가 간 어떻게 변하는 지 테스트함으로써 비교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 요인 2 시점의 삶의 만족 구성개념에 두 가지 개별 영역의 관계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제 3의 변수로서 또 다른 형태의 개별 영역 관계를 분석 모형에 통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가계부채 측정의 조사 데이터 시점 간 지연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가계부채의 변화에 따른 직무만족이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을 보다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노동패널의 1년 시점 조사로는 가계부채 변화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삶의 만족(t1) → 가계부채(t2) 교차지연 사이즈를 다소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가계부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려면 다 시점(multi points) 분석과 가구부채와 개인부채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riza-Montes, A., Arjona-Fuentes, J. M., Han, H., & Law, R. (2018). The price of success: A study on chefs' subjective well-being, job satisfaction, and human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69*, 84-93.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Chakraborty, R. (2017). Configural, metric and scalar invariance measurement of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scale. *Int.J.Human.Soc.Stud, 3*(3)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

Diener, E.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well-being* (pp. 11-58) Springer.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Erdogan, B., Bauer, T. N., Truxillo, D. M., & Mansfield, L. R. (2012). Whistle while you work: A review of the life satisfaction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8*(4), 1038-1083.

Gray, D. (2014). Financial concerns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A joint modelling approach.

Hagmaier, T., Abele, A. E., & Goebel, K. (2018). How do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ssociat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Headey, B., Veenhoven, R., & Weari, A. (2005).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Citation classics from social indicators research* (pp. 401-420) Springer.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4), 574.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6). The dynamic proces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5), 1421-1450.

Joo, S., & Grable, J. E. (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1), 25-50.

Judge, T. A., & Watanabe, S. (1993a).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6), 939.

Judge, T. A., & Watanabe, S. (1993b).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6), 939.

Leonardi, F., Spazzafumo, L., & Marcellini, F. (2005). Subjective well-being: The constructionist point of view. A longitudinal study to verify the predictive power of top-down effects and bottom-up process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0*(1), 53-77.

Leonardi, F., Spazzafumo, L., Marcellini, F., & Gagliardi, C. (1999). The top-down/bottom-up controversy from a constructionist approach. A method for measuring top-down effects applied to a sample of older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89-218.

Lero, D., Richardson, J., & Korabik, K. (2008). Cost benefit analysis of work life balance practices.

Lucas, R. E., Diener, E., Grob, A., Suh, E. M., & Shao, L. (2000). Cross-cultural evidence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extra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452.

Mallard, A. G., Lance, C. E., & Michalos, A. C. (1997). Culture as a moderator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 life facet satisfaction relationship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3), 259-284.

Medgyesi, M., & Zólyomi, E. (2016). Job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financial situation and thei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6*

Near, J. P., & Rechner, P. L. (1993). Cross-cultural variation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n historical view of differences among west european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1), 109-121.

Newsom, J. T. (2015).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Routledge.

OECD iLibrary. (2020). **How's life? 2020 : Measuring well-being**.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8f1fafe-ko/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18f1fafe-ko#chapter-d1e3

Özbilgin, M. F., Beauregard, T. A., Tatli, A., & Bell, M. P. (2011). Work - life, diversity and intersectionality: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3*(2), 177-198.

Rain, J. S., Lane, I. M., & Steiner, D. D. (1991). A current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Review and future considerations.

Human Relations, 44(3), 287-307.

Rode, J. C. (2004).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revisited: A longitudinal test of an integrated model. *Human Relations, 57*(9), 1205-1230.

Scherpenzeel, A., & Saris, W. (1996a). Causal direction in a model of life satisfaction: The top-down/bottom-up controvers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2), 161-180.

Scherpenzeel, A., & Saris, W. (1996b). Causal direction in a model of life satisfaction: The top-down/bottom-up controvers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2), 161-180.

Schneider, L., & Schimmack, U. (2010). Examining sources of self-informant agreement in life-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07-212.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